

1 응답자 일반정보			
성명	XXX	소속 / 직위	XXXXX / XXX
전화	010-	이메일	@

2 사회적 임팩트 분야	응답란 ▶	4
① 로컬 : 도시이슈, 지역발전 ② 웰빙 : 문화, 교육, 주거, 건강 ③ 환경 : 동물, 기후, 에너지, 자연보호 ④ 연대 : 공동체, 소상공인, 공유경제 ⑤ 사람 : 취약계층, 다양성, 여성, 청년 ⑥ 기타 : (<i>'기타' 해당 시 작성 바랍니다.</i>)		

3 사회적 임팩트 활동과 관련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또는 개선 필요사항
2021년 10월 국가인권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93.7%가 기후위기는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개인의 실천에서는 온도차가 있다. 가축 사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규모가 모든 교통수단에서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기에 육식을 줄이는 행동은 무척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개인의 건강관리 목적으로 식물성 식단을 선택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육식을 줄이는 이들은 17.9%에 불과했다. 기후위기는 개개인마다 민감도가 뚜렷이 갈리는 의제다. 이 격차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될지도 모른다. 이미 기후실천에 대한 죄책감, 우울 분노를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개인'과 개인의 삶의 태도에 따른 사회문제 실천 방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습관까지 바꾸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일회용품 줄이기조차 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자유로운 자기표현과 자신에 집중(Me Generation)하는 시대에 이런 삶의 방식과 취향이 집단 간 격차와 갈등이 아닌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일상의 행동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일이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의 초점이기도 하다. 천 명의 라이프스타일은 천 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지금의 사회문제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기후위기? 빈곤? 불평등?.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는 '무관심'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사람들은 왜 사회문제에 무관심하지?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언제부턴가 자신의 일상적 이해관계나 욕구와 무관한 문제에 무관심을 넘어 지나치게 무지하고 적대적이기까지 한 사회적 단절이 원인은 아닐까 국민 10명 중 7명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느낌이 없다고 말한다. 20대 4명 중 1명은 더 이상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 단절은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할 기회를 부족하게 만들고 이는 무관심과 혐오로 발전한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남에게 신경쓸 만큼 여유가 많지는 않다. 젊은세대, 노년세대 할 것 없이 바쁘다. 그러면서 세상은 변하지 않아, 나는 그런 문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 세상의 문제는 너무 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적어, 나 하나 실천한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고착시키는데 기존의 사회참여 활동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라는 개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 나를 둘러싼 생각과 이해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해서 서로 갈등하는 상황이 이전보다 빈번히 발생한다. 갈등은 한 번 불거지면 치유되기는커녕 새로운 갈등에서 또 다른 갈등으로 옮겨가는 인화성 사회에서 해결의 핵심을 '문제' 중심에서 개인의 삶과 일상에 초점을 둔 '사람'중심으로 전환 필요하다. 즉, 시민 중심의 일상의 변화를 문제해결의 시작점(up stream)에 두는 것이다.

XXXXX은 '나'라는 유일무이한 해결책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사회가 더 복잡해질 앞으로의 사회문제를 대처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문제해결 방식(캠페인 등)에 함께 동참했는가보다는 개인들이 자신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가장 즐겁고 오래할 수 있는 '개인화된 행동'을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이를 개발하고 확산해나가고 있다.

4 위 응답과 관련한 활동 상태

응답란 ▶

1

- ①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중
- ②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기획 및 준비 중
- ③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파악하였으나 현재 방법이 없거나 미비

5 위 응답과 관련 외부조직과의 협력

일종의 P to P 방식으로, 평범한 시민들 스스로 각자의 행동을 제안하고, 또 누군가 그것을 따라 모방하고, 또 누군가 그 모방을 통해 얻은 행동을 또 제안하고, 따라하는 시민 행동 제안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좋겠음.

6 문의 및 건의사항

※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